"광양을 배터리 중심도시로"…기회발전특구 지정 잰걸음

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생태계 조성' 기획 과제 착수 보고회 7월 심의 후 최종 선정···광양시 "세계 배터리 산업 메카 만들것"

광양시가 배터리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 발전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특구) 지정과 생태계 조성' 기획과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전남도와 공동 추진하며, 착수보고 회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전남도 김종갑 전략산업 국장, 전남테크노파크 오익현 원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배터리산 업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더블유피 자문 위원들과 전남대, 조선대, 동신대 교수진,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HY클린 메탈 등 관련 기업 임원들도 참석해 관심을 보였

용역을 수행한 (주)지아이피 류세선 대표는 연구용역의 추진 배경과 국내·외 이차전지 시장 동향, 광양시 지역 여건, 연구 수행계획,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이차전지산업의 핵심기업 투자계획, 전문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계획, 지역 산업 연계 방안과 인근 지역 산업 상생 방안, 재정지원사업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기 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발 빠르게 준비할 예정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이차전지 소재 기업 투자 확대 뿐 아니라 배터리 셀 기업과 리사이클링 기업 의 대규모 유치를 끌어내며 글로벌 배터리 중심도 시로서의 도약을 목표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하며 오는 7월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광양시에는 율촌산단을 중심으로 포스코퓨처엠, 포스코HY클린메탈,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등 이차전지 원료-소재-리사이클링 분야에 2조6000 억원 상당의 투자가 이뤄져 1141명의 고용효과를 낸 바 있다.

또 인근 옛 한라IMS 부지에도 양극재와 수산화 리튬 생산공장에 3조1800억원의 투자와 850명의 고용 창출이 예정돼 있어 이차전지 소재 분야 밸류 체인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차전지는 수소산업과 함



정인화 광양시장이 12일 광양시청서 열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생태계 조성' 기획과제 착수보고회에서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께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광양의 대표 전략산업"이 라며 "용역을 통해 광양을 이차전지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을 반드시 받아 세계 배터리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여수시 90% 지원한다

여수시가 지역 출산가정 산모·신생아의 건 강관리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고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원하는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본 인부담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된 다.

지원금은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 보건소 를 방문해 신청하면 총 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출산 지원 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가 17일 시설을 전면 개방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디오션 워터파크 전경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17일 개장…EDM DJ파티·워터캐논·물총싸움 '워터 샷'

호남 최대의 물놀이 시설인 여수 디오션 워터파 크가 17일 시설을 전면 개방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디오션 워터파크는 평년보다 덥고 오락가락하는 날씨로 작년보다 일주일 더 앞당겼다고 밝혔다.

개장일인 17일 MBC 트로트클라쓰 공개녹화를 시작으로 24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DJ와 워 터캐논, 물총이 어우러지는 여름축제 '워터-샷'이 펼쳐진다.

디오션 워터파크 야외무대에서 공개녹화가 진행되는 '트로트클라쓰' 특집 '얼리버드 썸머 페스티벌 6월의 바캉쓰 클라쓰'는 '트롯요정' 요요미, '자기야' 박주희, '모세' 춘길, '쌍둥이 개가수' 상호상

민 등이 출연해 워터파크 입장객과 흥겨운 축하쇼를 펼친다.

3시간씩 진행되는 1, 2부 녹화 사이에는 EDM DJ 파티가 준비되어 있으며, 워터파크 이용권과 순천 정원박람회 입장권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

24일부터 진행되는 '워터-샷'은 DJ 디지, DJ 캐스퍼, DJ 앤요 등의 DJ 공연과 더불어 이번 축제를 위해 설치되는 워터캐논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대포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여름 물놀이 '인싸템' 으로 통하는 각종 물총과 고글 반입이 가능해지면서 여름 축제를 방불케 할 예정이다.

'워터-샷'은 8월 15일까지 매주 토, 일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간 워터파크 실외 파도 풀에서 진행 된다. 물총은 현장 대여도 가능하다.

1.5t의 물대포와 함께 비상할 수 있는 캐논볼, 국 내 최고 72도 각도에서 맨몸으로 떨어지는 다이렉 트 슬라이드 등 실내외 10여 개의 어트렉션은 워터 파크 본래의 짜릿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 점검을 마쳤다.

김려근 디오션리조트 실장은 "고객 경험에 중점을 두고 지역 유일의 썸머 워터 페스티벌을 기획했다"며 "친구, 연인은 물론 가족 단위까지 모든 입장객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여수에서 올여름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전남 사랑에 원시포티즈 모집 함께인 1위 달성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모집 1위 달성 전라당 알전하는 보성! 중 보장군

김철우(가운데) 보성군수 등 관계자들이 '전남 사랑애(愛)서포터즈 모집 캠페인'에서 1위 달성을 기념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보성군제공〉

보성군, 전남 사랑애(愛)서포터즈 모집 캠페인 1위

2만6210명 모집…2억원 확보

보성군이 전남도가 실시한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에서 1위를 차지해 인센티 브로 상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5월31일까지 6개월간 2만6210명의 '전남 사랑에 서포터 즈'를 모집했다.

군은 67만 명이 다녀간 '2023 보성세계차엑스 포'기간 중 운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전남 사랑애(愛)서포터즈 모집 부스를 성과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관광객에게 가입을 홍보하는 포스터 제작 뿐만 아니라 가입 연계 이벤트, 모바일 공유, 메시지 (알림톡 등)를 통한 혜택과 관광 소식 알림 등을 통해 서포터즈를 모집했다.

대기업, 기관·단체와 유관기관이 주최한 각종

대외 행사장을 방문해 직원·가족, 출향 향우 등에 게 서포터즈 신청을 홍보해 서포터즈 활동 동참을 유도했다.

가입 활성화와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민원실 과 금융기관 등 가입신청서를 비치해 민원인과 방문객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도 활발했다. 공무원 SNS 홍보단과 군민 SNS 서포터즈단이 가입 목적과 할인 혜택을 다양한 매체에 게시? 공유하며 단기간에 전남 사랑애(愛)서포터즈 가입 붐을 일으켰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결과"라며 "보성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서포터즈 가입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할인 가맹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음악이 보이는 바다, 순천 놀러와온'

시, 17일 와온해변서 음악회…세계유산 축전 사전 행사

'음악이 보이는 바다, 순천 놀러와온' 음악회〈사 진〉가 17일 오후 7시 해룡면 와온해변 부둣가에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순천 갯 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 추진됐 다.

음악회는 지역예술인인 룩스 앙상블과 허윤정 쿼 탯의 공연으로 구성했다. 창작곡인 'Sunset On The Waon Beach'를 시작으로 노을, 쉼, 바람 등 주제별로 아름다운 선율을 준비했다.

기타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 집을 참고하거나 순천시 문화유산과로 문의하면 된 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와온해변의 아름 다운 풍경과 세계유산으로 탁월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 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1인당 최대 37만9600원 지원

보성군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2023년 에너 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자에 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 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 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 돼야 한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14만9800원(1인)부터 37만9600원 (4인 이상)까지 지원된다.

*까*시 시원된나.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F1 종자·계통벼 개발 시험 재배

곡성읍 묘천리 일원

곡성군이 지역에 맞는 벼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시험 재배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시험포는 곡성읍 묘천리 일원에 마련됐다. 지 난해 교배된 F1 종자와 계통벼 등을 시험 재배하 고 있다.

곡성군은 고품질 쌀 품종을 개발하고, 지역에 적합한 계통을 선발하기 위해 시험포장을 운영한다. 지역 농업인들은 벼의 키와 수확량, 병해충 저항성 등 생육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새 벼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2~13년가량

육성 기간이 필요하다.

곡성군은 전문가 조언을 받아 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생육 상황과 현미 품위를 검사한 뒤 벼 계통을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외래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품종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곡성에서는 공공비축쌀 수매 품종으로 지정된 새청무와 신동진 벼 재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일부는 백세미 브랜드인 골든퀸3호 벼, 강대찬벼, 찰벼, 가루쌀 등이 재배되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벼 품종 시험포.

〈곡성군 제공〉